

지역 소식통

김제시·수자원공

노후 상수도 정비 추진

김제시는 2020년부터 한국수자원공사(K-water)와 함께 김제시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김제시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은 환경부 국고보조사업으로 사업비 417억 원을 확보해 노후 수도관을 교체하여 유수율을 높이고 맑은물 공급 및 효율적인 수돗물 공급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지난 5월부터 김제시 전체를 2개 소블록으로 구획하여 효율적인 수돗물 공급을 도모하는 '블록시스템 구축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이달부터는 사업대상지인 동지역(요촌동, 검산동, 교월동, 신흥동 일원) 일원을 대상으로 노후 수도관(배수관 26.1km, 급수관 11.8km)을 교체하는 '관망 정비공사'가 추진될 예정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어울림'

치매가족 자조모임

김제시(시장 정성주)가 관내 치매 환자의 가족·보호자 간 정보 및 정보 교류 지원을 통한 심리적 부담 경감과 사회적 고립 방지를 위해 9월과 10월 두 달간 매주 2회(월, 수요일 오후 2시~3시), 김제시치매안심센터 내에서 '어울림 치매가족 자조모임'을 운영한다.

이번 자조모임은 치매 및 경도인지장애 환자의 가족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치매 관련 기사 및 정보를 제공하고 서로 교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최초 1~2회는 참여자들의 원활한 모임 참여를 돕기 위해 담당자가 함께해 모임의 장을 밝고 운영기준을 함께 설정할 수 있도록 돕는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김제시의 치매나 경도인지장애 환자의 가족과 보호자들이 이번 자조모임을 통해 각자 환자들을 돌보면서 쌓은 정보나 노하우를 공유하며 서로 정서적·심리적 친밀감도 쌓아 참여자들이 지역사회에서 더불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무씨레질 재배 환경오염 방지

김제농기센터-국립식량과학원

죽산면 농가서 재배기술 선포

김제시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와 국립식량과학원은 지난 1일 김제시 죽산면 옥성리 농가에서 벼 무씨레질 재배기술 농가 현장 평가를 열었다.

이번 평가회는 농업 활동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수단인 무씨레질 재배기술 방법을 선보이기 위해 마련됐다.

무씨레질은 논이 마른 상태에서 휴갈(로터리)과 균평 작업을 한 뒤 물대기 후 모내기하는 기술이다. 논에 물을 가둔 뒤 휴갈이와 균평 및 씨레질 작업을 하는 씨레질에 비해 탁수(흐린 물)가 덜 발생해 농업 수질 오염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

이날 평가회에는 국립식량과학원, 김제시 농업기술센터, 경기농업기술원, 전남농업기술원, 경상국립대학교 관계자와 현장 실증 참여 농가 등 20여 명이 참석해 무씨레질의 장단점과 농가 의견을 공유하고 현지 생육상황 등을 평가하는 시간을 가졌다.

일반적으로 모내기 전에는 물을 가둔 뒤 씨레질하여 다시 물을 내보내는 데, 이때 논에 있던 부유물질과 영양물질 등이 물에 섞여 하천이나 호수, 늪 등으로 유입돼 농업 수질 오염이



김제시농업기술센터와 국립식량과학원은 지난 1일 김제시 죽산면 옥성리 농가에서 '벼 무씨레질 재배기술 농가 현장 평가회'를 열었다.

발생한다. 이번 평가회에서 선보인 무씨레질 기술을 적용하면, 씨레질을 때보다 부유물질과 총질소가 줄어들어 수질 오염 정도를 훨씬 낮출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외국 연구 자료에 의하면 노동력 분산 토양 환원 약제로 메탄가스 발생 억제 및 배수 불량 논 개선 효과 등의 장점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장 실증농가 정상용 씨는 "씨레질을 생각하니 모내기 뒤 농기계를 청소하는 시간이 감축됐으며 이앙기 연료 소비량도 절감되는 것 같다. 벼 뿌리 활착도 2~3일 빨라 안정적으로 수량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국립식량과학원과 김제시 농업기술센터는 앞으로 2년간 현장 실증을 통해 무씨레질 재배기술을 확대하고 보급할 계획에 있다.

국립식량과학원 작물재배생리과 장재기 과장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 제고를 위한 무씨레질 기술이 농가 현장에서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승중 기술보급과장은 "기후변화로 농사에 어려움이 많은데 벼 무씨레질 재배기술을 통해 모 이앙일을 조절할 수 있고 수질오염도 낮추는 효과가 있어 이 사업이 확대되길 바라고, 수확기까지 생육상황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이 균형발전과 군민편의 증진을 위해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를 추진해 성과를 창출한 우수 공무원을 선발해 시상했다.

완주군,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 선발·시상

귀농귀촌 활성화·대중교통 불편 개선 등 선정

완주군이 균형발전과 군민편의 증진을 위해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를 추진해 성과를 창출한 우수 공무원을 선발해 시상했다.

지난 1일 완주군은 적극행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군 역점사업, 민원서비스, 혁신행정, 예산효율성, 국가예산 등 5개 분야별로 우수공무원 9명(최우수 3, 우수 6)과 우수부서·팀 5개(부서 3, 팀 2)를 최종 선발했다고 밝혔다.

우수 공무원 중 최우수 공무원은 군역점사업분야 이상기 지역활력과 주무관, 민원서비스 분야 장우성 도로교통과 주무관, 혁신행정 분야 신신영 도서관사업소 주무관이 선정됐다.

이상기 지역활력과 주무관은 10만 완주군민 유치와 귀농귀촌 선도도시 도약을 위한 노력으로 귀농귀촌 원스톱 컨설팅 추진 및 귀농귀촌 행복주택 신규 조성사업을 추진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장우성 도로교통과 주무관은 삼봉지구 시내버스 내부 경유 운행, 농촌 고령인구 대중교통 이용 불편을 크게 개선한 점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신신영 도서관사업소 주무관은 특수계층(어린이 장애인 어르신)을 포용하는 스마트도서관 운영을 위한 치매예방 프로그램 운영 등의 성과를 인정받았다.

우수부서 포상이 진행된 예산효율성 분야에서는 미래전략담당관 농업축산과, 열린민원과가 선정됐으며, 국가예산 분야에서는 산림복지과 조경팀, 건설도시과 도시재생팀이 포상을 받게 됐다.

군은 선발된 공무원들의 선정 등급에 따라 특별휴가, 포상금 등의 특전을 줄 예정이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적극행정의 사례들이 앞으로 완주군 적극행정 실천을 장려하고 직원들에게 동기부여의 계기가 돼 주민복지 향상과 균형발전이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완주군은 우수공무원 선발분야에 균형발전분야를 추가해 완주군 정책을 주민에게 적극적으로 홍보 및 정책에 대한 군민 체감도를 향상해 나갈 예정이다. /완주=염재복 기자

"추석선물 미리 준비하세요"

완주군, '바로밀' 등 지역 식품기업 생산 상품 구성

완주군이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이하기 위해 완주바로밀을 간편식 대표브랜드로 개발하고 특허청에 상표를 출원한 완주군 대표 밀기트 브랜드다.

사전 예약은 완주신활력플러스사업단을 통해 15일까지 가능하며, 수령 방법은 택배와 직접수령으로 선택할 수 있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완주군은 로컬푸드를 기반으로 많은 협동조합, 식품기업 등이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다양한 먹거리를 생산하고 있다"며 "다가오는 추석명절에는 완주군의 지역의 맛과 건강함을 담은 추석선물세트로 풍요로운 한가위를 맞이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완주=염재복 기자

을 활용한 가정 간편식 상품을 육성하기 위해 완주바로밀을 간편식 대표브랜드로 개발하고 특허청에 상표를 출원한 완주군 대표 밀기트 브랜드다.

사전 예약은 완주신활력플러스사업단을 통해 15일까지 가능하며, 수령 방법은 택배와 직접수령으로 선택할 수 있다. 택배 배송은 사전예약 종료 후 일괄 발송되며, 직접 수령은 W푸드테라피센터 판매장(063-247-7422)에서 이루어진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완주군은 로컬푸드를 기반으로 많은 협동조합, 식품기업 등이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다양한 먹거리를 생산하고 있다"며 "다가오는 추석명절에는 완주군의 지역의 맛과 건강함을 담은 추석선물세트로 풍요로운 한가위를 맞이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완주=염재복 기자

김제시, 오늘부터 15일까지

추석 성수식품 위생관리 강화

김제시는 추석 명절을 맞아 시민들에게 안전한 추석 성수식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4일부터 15일까지 위생 지도점검 및 수거검사를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떡볶이, 부침 및 튀김류, 나물 등 제수용 음식을 조리 판매하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일명 반찬가게, 방앗간 등), 식품제조가공업소, 대형유통판매업소 등 총 56개소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제조가공실 위생적 관리 △소독기간 경과 원료 및 제품 사용·판매 여부 △영업자 준수 사항 이행 여부 △자가품질검사 실시 여부 △무등록(신고) 및 무표시 제품 사용 여부 등이다.

이와 함께 전통시장, 마트에서 판매되는 농산물, 건강기능식품, 제수용 식품을 수거하여 전라북도보건환경연구원 원에 잔류농약, 식품육균 등을 검사할 예정이며 점검 결과 위반업체는 행정처분 등 조치를 하고 6개월 이내에 재점검할 계획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쌍룡놀이·입석줄다리기, 누구나 참여 가능'

김제시, 15일까지 지평선축제 프로그램 사전 접수

김제시는 오는 10월 5일부터 9일까지 개최되는 제2회 김제지평선축제의 대표 프로그램인 지평선 쌍룡놀이와 풍년기원 입석줄다리기에 일반 관람객들도 함께 참여해 즐길 수 있도록 변화를 시도했다.

이번 변화는 올해 김제지평선축제의 성공 목표 중 하나인 시민 참여형 축제를 만들자는 취지에서 비롯되었다. 김제시는 문화와 역사의 중심인 프로그램들을 이제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관람객이 직접 이끄는 축제를 만들자는 방침이다.

쌍룡놀이와 입석줄다리기에 참여하고자 하는 시민은 이달 15일까지 진행되는 사전접수 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쌍룡놀이는 10월 6일과 8일 오후 5시에, 입석줄다리기는 10월 5일 오후 5시, 10월 9일 오후 3시에 각 2회씩 진행된다. 프로그램 회차당 20명씩 선착순으로 접수를 받으며, 10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또한 프로그램 중간에 관람객들과 함께 즐기는 구간도 준비되어 있어 사전접수를 하지 않은 현장 관람객들도 참여가 가능하다.

한편 가을을 대표하는 제2회 김제지평선축제에 '김제! 새로운 지평을 열다!'라는 슬로건으로 10월 5일부터 9일까지 황금물길 지평선의 넘치는 감동을 선사하기 위해 벽골제 및 시내권 일원에서 개최된다. /김제=곽노태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